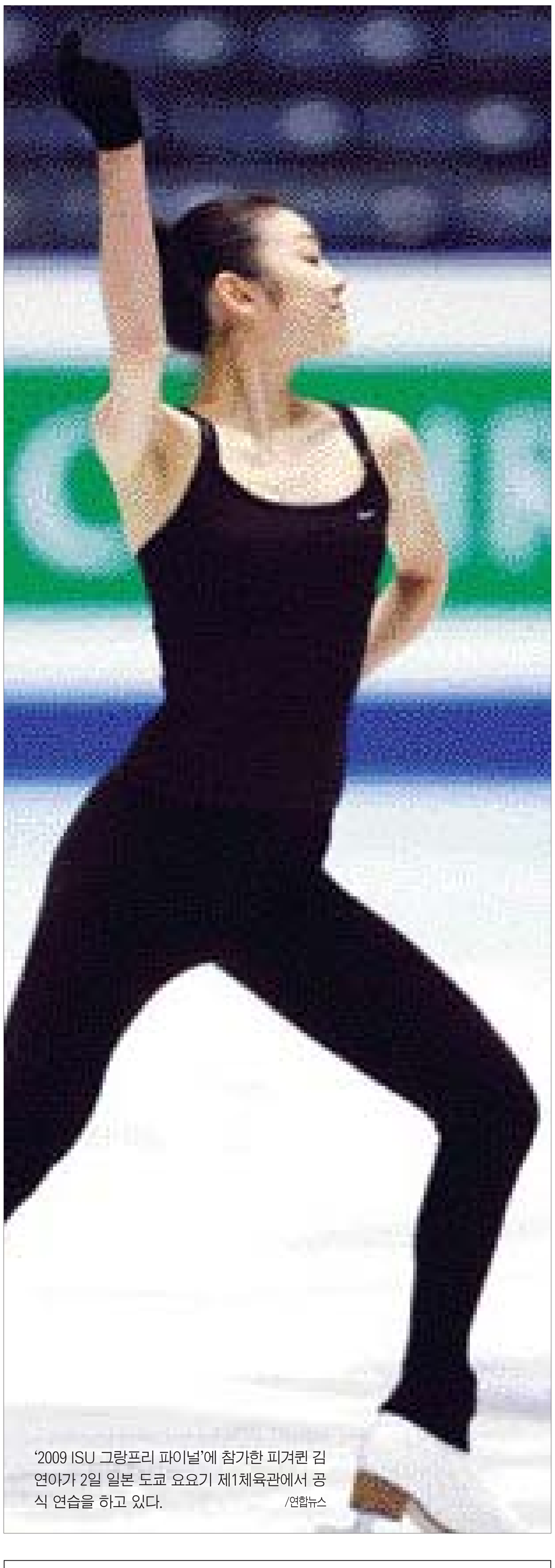
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에 참가한 피겨퀸 김연아가 2일 일본 도쿄 요요기 제1체육관에서 공식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아 "마지막 적수는 내 자신"

내일 그랑프리 파이널… 스스로를 이기는게 중요, 완벽연기 기대

'두려운 상대는 없다. 자신과의 싸움이 남았을 뿐'

'피겨여신' 김연아(19·고려대)가 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상대'인 스스로와의 싸움을 시작한다.

지난 10월 파리에서 열린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역대 여자 싱글 최고점(210.03) 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데 이어 11월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5차 대회에서도 쇼트프로그램 역대 최고점(76.28)을 받은 김연아는 이번 대회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번 대회에는 조애니 로셰트(캐나다)와 안도 미키, 스즈키 아키코(이상 일본), 알레나 레오노바(러시아), 애슐리 와그너(미국) 등이 여자 싱글에 나서지만 사실상 김연아를 위협할 만한 적수는 되지 못한다.

로셰트가 6차 대회 때 182.90점을 받아 경쟁자들 중 가장 높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김연아가 2차 대회 때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난조를 보인 끝에 받은 187.98점보다 5점 이상 낮다.

로셰트를 제외하면 스즈키와 안도만 1차례씩 170점을 넘어서 보았을 뿐, 16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김연아와 현격한 기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쟁자들과의 대결보다는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해 보다 완벽한 연기를 펼칠 수 있느냐가 김연아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연아 역시 1일 도쿄에 들어오면서 "항상 모든 선수들이 경쟁상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라이벌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하겠다. 내 할 일만 신경쓰려고 한다"고 말하며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차 대회를 치르면서 김연아에게는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

김연아는 당시 쇼트프로그램에서 역대 최고점인 76.28점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최고기록을 세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거듭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총점 200대 유지에는 실패했다. 좋은 점수를 받겠다는 의지가 부담으로 작용하던 상황에서 컨디션 난조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김연아는 "5차 대회에서는 컨디션도 안 좋았고 점수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긴장감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계를 모르고 나날이 기량을 향상시키며 어느새 라이벌들을 멀리 앞지르고 '차원이 다른 선수'로 성장한 김연아로서는 명실상부한 '피겨 여제'로 자리잡기 위해 거쳐야 할 시험대인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자신'이라는 마지막 적수를 만난 셈이다.

김연아에게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이번 대회가 스스로를 극복하고 심리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특급용병 로페즈 KIA 지킨다

총 37만5천달러 재계약… 내년 1월 팀 전훈 합류

'특급용병' 로페즈가 2010시즌에도 KIA 타이거즈 마운드를 지킨다.

외국인 투수 로페즈가 2일 KIA와 계약금 7만5천불, 연봉30만불 등 총37만5천불에 재계약 했다. 2009시즌 총 30만달러를 받고 KIA 유니폼을 입었던 로페즈는 외국인 선수 몸값의 상한선인 25%의 인상률이 더해진 금액을 받고 한국 무대에 남기로 했다. 2010시즌 용병계약 1호다.

로페즈는 올 시즌 29경기에 등판해 3.1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14승 5패의 기록을 남겼다. 한국시리즈에서도 빼어난 활약으로 12년만의 우승에 일등공신이 됐다.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나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로페즈는 5차전에서는 완봉승을 낚았고, 7차전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등판해 실점이 없이 마운드를 지키며 역전의 발판을 놨다.

KIA는 시즌 중반 야구선수 출신의 사촌형을 선수단과 동행시키며 타국생활의 외로움을 달래 수 있도록 배려했다.시즌이 끝난 후에는 일찌감치 재계약 방침을 확정짓고 스카우트팀 조찬관 차장과 권윤민 스카우트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 로페즈 잡기에 총력전을 벌여왔다.

팬들도 한국시리즈 MVP 수상에 실패한 로페즈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MVP 트로피와 개인 피규어, 캐리커처 액자 등을 제작해 전달하는 등 열성을 보였다.

한국시리즈 중간 일본 진출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공언했던 로페즈는 결국 KIA를 선택해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로페즈는 재계약을 한 후 "한국과 팀의 정서가 모두 나와 맞는다. 특히 KIA타이거즈 동료 선수들과 구단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또 다시 기회가 온다면 KIA타이거즈에서 활약을 펼치고 싶었고 이제 기회가 왔으니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로페즈는 현재 도미니카 집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있어 오는 11일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는 불참한다. 웨이트 위주로 체력훈련을 하고 있는 로페즈는 도미니카 윈터리그에 참가하지 않고 내년 1월 투·포수조 훈련이 진행되는 괌이나 전지훈련지인 일본으로 합류할 계획이다.

KIA는 또 다른 용병 구톰슨과의 재계약 여부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KIA는 지난달 30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한 보류선수 명단에 구톰슨을 공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용병 물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체 용병이 마땅치 않을 경우 구톰슨과 재계약을 한다는 방침이다.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된 외국인 선수와는 12월31일까지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KIA선수단 팬사인회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4일과 5일 각각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빅스포에서 사인회를 개최한다.

4일 팬사인회는 롯데 백화점 3층에서 오후 3시부터 20분간 진행되며 이종범, 김상훈, 최희섭, 김상현, 이현곤, 김원섭, 양현종 등 7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5일에는 빅스포에서 오후 5시부터 사인회가 시작되며 이대진, 김원섭, 양현종이 참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도 우즈와 20차례 성관계"

20대 제이미 그럽스 주장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다.

1일(현지시각)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제이미 그럽스(24·사진)라는 여성은 최근 미국 주간지 유에스 위클리(US Weekly)와의 인터뷰에서 "31개월간 우즈와 사귀면서 20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럽스는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2007년 4월 우즈와 처음 만났다. 우즈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300건 이상 받았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에도 우즈로 추정되는 남성의 음성 메일을 받았는데, 이 음성 메일에는 "내가 바람피우는 걸 아내가 알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에스 위클리는 인터넷 홈페이지(www.usmagazine.com)를 통해 "2일 발간되는 잡지에 모든 내용이 실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자신을 둘러싼 온갖 소문이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즈는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선수협 '노조 설립안' 통과

205명 투표, 찬성 188표 압도적 지지
8개 구단·KBO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투표로 노동조합 설립안을 가결했다.

선수협회는 2일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8개 구단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기 총회를 열어 노조 설립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 30여분 간 투표가 중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참석인원 273명 중 205명이 투표해 찬성 188표, 반대 17표 등 91%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조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8개 구단 중 삼성과 LG 선수단 68명은 총회에 참석했지만 투표에는 불참했다.

손민한(34·롯데) 선수협회 회장은 "오늘 결과로 프로야구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 협회는 노조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 개개인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끔 노력할 것이다. 국내 프로스포츠 중 최고 인기가 있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노조 설립 진행 일정은 세우지 못했다. 각 구단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일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8개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선수협회 출범 당시 각 구단과 선수들이 정면 충돌했던 양상이 재현될 조짐이다.

당장 KBO는 즉각적으로 "선수를 이용해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일부 불순한 세력이 추진하는 선수 노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일 KBO 사무총장은 "선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소득업자다. 행정관청에 조만간 선수협회가 노조 설립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부가 이를 받아줄지도 의문이다. 결과가 어떻든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 이어 "노동부가 선수협회의 노조 설립을 받아들인다면 선수협회는 당장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거나 단체교섭을 요청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용자'인 각 구단은 선수 노조가 '노조의 자격이 없다'고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선수협회가 노조 설립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이를 반대해 온 8개 구단 및 KBO와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美 프로야구 필라델피아
박찬호 연봉조정신청 포기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박찬호(36)에 대한 연봉조정신청을 포기했다.

필라델피아 구단은 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연봉조정신청 기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1일 자정)까지 자유계약선수(FA) 투수인 박찬호와 스콧 에어에 대해 연봉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루벤 아마로 주니어 필라델피아 구단 단장은 계속 이들과 잔류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혀 재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필라델피아가 박찬호에 대한 연봉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박찬호가 선발투수에 대한 미련이 강한데다 연봉 조정 신청 후 박찬호의 연봉이 예상 밖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찬호는 지난달 귀국 때 새 팀의 조건으로 선발로 뛸 수 있는 팀, 분위기가 좋은 팀, 기왕이면 월드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는 팀 등을 순서대로 거론했다. /연합뉴스